

데스크 시각

육참골단과 새정치연합



임 동 욱
서울취재본부 정치부장

내년 총선을 앞두고 ‘육참골단(肉斬骨斷)’이라는 사자성이 새정치연합의 ‘화두’가 되고 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조국 교수가 4월 재·보선 패배의 후폭풍에 휩싸여 좀처럼 길을 찾지 못하고 있던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에게 강력한 혁신을 주문하며 제시한 사자성어다.

육참골단은 ‘자신의 삶을 베어내고 상대의 뼈를 끊는다’는 뜻으로 ‘스스로 고통을 감내, 크고 높은 목표를 이루어낸다’는 보편적 의미를 담고 있다. 뿌리 깊은 계파 갈등의 늪에서 좀처럼 빠져나오지 못하고 각종 선거에서 패배를 거듭해온 새정치연합의 현실 타개에 가장 적합한 사자성어라는 평가다.

문 대표도 지난달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상곤 혁신위원장을 맞이하며 “저 자신부터 기득권을 내려놓고 ‘육참골단’의 각오로 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육참골단’의 혁신은 결국 자기 총선 공천에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당 내에서는 다양한 반응과 해석이 나오고

있다. 친노 및 주류 진영에서는 살을 도려내는 강력한 혁신으로 국민의 지지를 되찾아 총선 승리와 정권 장출에 나서야 한 다며 육참골단의 진정성에 방점을 두는 모습이다. 하지만, ‘골단’을 위한 ‘육참’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미묘한 긴장감을 나타내고 있다.

‘육참’ 대상 놓고 설왕설래

조국 교수도 “친문, 친노라는 사람들이 총선 불출마와 2선 후퇴를 공개 선언해야 한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넘어서는 정치적 선택과 결단, 돌파력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자기 총선 공천에서 ‘육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친노 진영 인사들의 명단이 흘러나오고 있다. 그동안 친노의 핵심으로 활동했던 중진들과 뒤는 행보를 보였던 초·재선 의원들의 이름들이 주로 거론되고 있다.

비노 및 비주류 그룹에서는 ‘육참골단’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진정성에 대한 구심을 보이고 있다. 재보선 참패의 책임론을 비껴가기 위한 친노 주류 세력의 전형적인 ‘레토릭’(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혁신위의 출범은 친노 진영의 전열 정비를 위한 ‘시간벌기용’라는 냉소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 ‘육참골단’의 칼날이 결국 비노 진영을 향하지 않는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친노 주류 세력

이 혁신의 명분을 내세워 차기 총선 공천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문 대표가 선거 패배 책임론을 제기하는 비노 진영에 대해 ‘지도부를 흔들어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세력’이라고 정의한 비공개 성명서에서 찾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호남 정치권에도 불통이 떨어진 상황이다. 당내 혁신의 출발점으로 ‘호남 물갈이’가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적 뒷발에서부터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논리와 함께 호남 민심의 요구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두 차례의 보궐선거에서 새누리당 이정현(순천 곡성) 의원과 무소속 전 정배(광주 서구 을) 의원의 당선은 호남 민심이 새정치연합의 혁신과 변화, 지역 정치권에 대한 물갈이를 요구하고 있다는 얘기다. 당장 자기 총선 공천에서 배제되어야 할 3선 이상의 중진들과 정치적 비전을 보이지 못한 초·재선 의원들의 실명이 거론되고 있다.

희생·헌신의 결단 나오나

이에 호남 정치권의 반발도 거세다. 총선 때만 되면 호남 정치권을 기득권 세력, 혁신 대상으로 낙인찍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식으로는 호남 정치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명확한 근거 없이 획일적으로 호남 물갈이에 나설 경우 또 다

른 당내 분란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전남도당위원장인 황주홍 의원도 “혁신은 친노 패권주의 등 본질적 문제를 해결해야지 호남 물갈이라는 ‘하책’을 써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일방적인 물갈이가 이뤄질 경우, 신당 창당이나 분당이 불가피하게 되면서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야권 분열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새정치연합의 혁신이 내부의 저항을 이겨내고 국민적 감동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자기 삶을 스스로 베어내는 희생과 헌신이 필요하다.김상곤 혁신위원장이 지난 1일 자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며 헌신의 길을 먼저 열었다. 하지만 원외라는 점에서 파괴력이 그리 크지 않다.

결국, 당내 주류 세력인 친노 진영의 결단이 주목되고 있다. 그들의 정치적 희생과 헌신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혁신의 진정성과 동력을 얻기 어렵기 때문이다.

가혹한 주문일 수도 있지만 당내 갈등과 반목의 매듭을 끊고 혁신을 실현하기 위한 유일한 길일 수 있다. 이제 혁신을 상징하는 ‘육참골단’이라는 사자성어는 새정치연합의 미래를 결정짓는 키워드가 됐다. 새정치연합이 희생과 헌신을 통해 혁신의 고통을 지혜롭게 극복하고 총선과 대선 승리의 동력을 확보할 것인지, 야권의 고질병인 분열을 반복하며 스스로 무너질 것인지 민심의 이복이 집중되고 있다.

/tuim@kwangju.co.kr

社 說

광주U대회 복병 메르스 차단 총력 쏟아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망자가 나오고 3차 감염원자도 잇따라 확인됨에 따라 지역사회 확산 우려와 함께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U대회) 성공 개최에도 비상이 걸렸다. 2일 기준으로 메르스 확산을 받은 환자 25명 중 2명이 숨진 데다 2차 감염자 2명이 3차 감염자로 확인 판정을 받으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보건당국의 격리 관찰 대상자가 최대 1000명을 초과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와, 앞으로 지역사회 전파 위험성도 대두되고 있다. 1000명을 넘어서면 보건당국이 일괄적으로 이들을 통제하기 어렵고, 일부 격리 대상자가 당국의 권고를 무시하고 이탈하면 전국적으로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U대회를 한 달 앞둔 광주시로서는 메르스 공포가 ‘얕힌 데 덮친 격’이 아닐 수 없다. 메르스가 처음 발생한 중동에서 8개 국 400여 명이 출전 의사를 밝혀 광주시가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부

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광주시는 일단 지역으로의 메르스 확산 차단에 주력하고, 중동지역 선수들의 검역 강화에도 총력을 쏟아야 한다. 메르스 잠복기간이 최대 보름가량인 만큼 입국 전 예찰 활동에 한계가 있고, 대회기간 환자 발생 시는 속수무책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국제대학교스포츠연맹(FISU)과 정부의 협조하에 이들 참가 선수단의 검역 여부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과 공항에서 검역을 철저히 해야 한다. 또 의심 선수가 발생하면 조직위원회 통보와 격리 조치 등 대응 시스템을 완벽히 갖춰야 한다.

격리치료를 위한 병상 수가 전남대병원 25병상, 전북대병원 26병상 등 101개에 불과하고 조직위나 일선 보건소에 의심환자를 초기에 진단할 수 있는 열감지 카메라가 확보되지 않고 있는 것도 서둘러 보완해야 과제다. 철저한 대책과 대응만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

광주 교통문화 낮부끄러운 수준이라니

세계 젊은이들의 스포츠 축제인 2015 광주하계U대회가 성숙하지 못한 교통문화로 혼잡한 분위기에서 치러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과속과 끼어들기는 기본이고 중앙선 침범, 음주운전, 보행자 무단횡단 등 고질적인 교통법규 위반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대회기간 동안 2만여 명의 외국 선수단 등이 광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돼 지역에 대한 이미지가 실추되지나 않을까 걱정스럽다. 통계로 드러난 광주의 교통문화지수는 낮부끄러운 수준이다.

광주지방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해 광주지역에서 총 8167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101명이 숨지고, 1만3218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수치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5번째로 높은 것이다. 교통문화 수준을 나타내는 불법 주·정차 추돌사고는 944건, 신호 위반사고 994건, 횡단보도 사고 197건에 이르는 등 문화도시라는 타

이들이 무색할 지경이다.

음주운전 역시 마찬가지다. 지난해 광주지역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만 무려 7959명으로, 하루 평균 22명에 달했다. 국토교통부의 조사 결과에서도 광주는 횡단보도 정지선 준수율이 73.7%에 그쳐 전국 12위를 기록했다. 이쯤 되면 교통문화의 후진도시라 부를 만하다.

사실 광주의 악명 높은 교통문화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외지인들에게 광주는 ‘운전하기 두려운 도시’로 인식된 지 오래다. 여기에는 무엇보다 시민들의 준비의식 결여가 가장 큰 원인이다. 이러한 사고방식이 바뀌지 않는 한 광주의 교통선진화는 요원할 뿐이다.

U대회는 광주가 글로벌 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따라서 세계에 광주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하다. 광주시도 대대적인 교통문화 캠페인을 펼쳐 시민 의식을 끌어올려야 할 것이다.

은편칼럼



한 국 한
전남도립대학교 경찰경호과 강사

“우리 웃으면서 만나고 울면서 헤어져요. 늘 노심초사 눈치 보며 근무해요.” “결혼이요? 꿈도 못 꿉니다. 돈이 있어야죠. 내 인생의 전부는 취업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의 말이다. 전자는 비정규직, 후자는 미취업자다. 이렇듯 요즘 세대의 단면을 보여주는 청년들의 말에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우리나라 청년(15~29세)실업률은 작년 9.0%에 이어 올 2월에는 11.1%, 4월에는 10.2%로 15년 만에 최악이다. 체감 실업률은 더 높다. 뉴스도 나온다. 이는 ‘청년 10명 중 1명이 백수’라는 말과 더불어 청년취업의 어려움을 방증하고 있다. 선진국에서도 청년실업률이 전체실업률의 약 2배가 되는데 우리는 전체실업률 4.6%에 비해 2배가 넘고, 올 대졸 신입사원

청년들 눈물의 SOS에 희망의 답신을

취업경쟁률도 평균 32.3대 1로 취업난은 여전하다.

이처럼 우리 청년들의 상황은 실망을 넘어서 절망에 이를 정도로 불확실하다. 그런데 이를 단순히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렵다는 인식과 판단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 거시적으로 볼 때 청년실업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회 전체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너무도 크기 때문이다.

청년들은 사회 초년계층으로 미래 생산과 소비의 주체인데 그들의 경제적 빈곤으로 소비저하, 판매부진이 촉진되어 제고의 증가로 생산량이 감소할 것이며 그에 따라 일자리가 줄어들고 사회가 활력을 잃게 되면 국가가 크게 흔들릴 것이다. 즉, 미래를 책임질 청년들의 고용과 취업의 어려움은 결혼감소와 저출산 등으로 이어져 전 국가적인 문제로 확장된다는 이야기다.

그래서 청년 문제는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중장기적 계획을 세워 정확한 진단과 미래 지향적인 처방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다. 하지만 현 시국은 국민 노후에 관한 연금문제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대통령도 공무원연금 개혁을 재촉하고, 결국엔 여야의 줄다리기 협상으로 통과되었지만 더 중요한 것이 청년 문제임을 깨달아야 한다.

“중동지역으로 취업하세요. 기업 법인세 낮춰줄 테니 고용 늘리세요. 은행이자 가 낮으니 투자 많이 하고 집 구입하세요.” 등 단편적인 구호와 정책의 효과는 미비했다. 더군다나 기업은 사내유보금이 수백조 원씩 쌓여 넘치는데(작년 10대 제조업 316조 4천억 원), 임금·일자리는 제자리이며 이익을 사회에 되돌리는 환류에는 인색하다. 그나마 늘어난 환류액도 대부분 대중주와 외국인 투자자의 몫이었다.

이런 불확실한 상황에서 미래학자들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단서는 인구’라고 말한다. 60년 후 우리나라는 40%의 인구가 출고, 그 후 20년이 지나면 한반도의 인구는 절반밖에 남지 않을 것이라 예측된다. 옥스퍼드 인구문제 연구소에서는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로 우리나라를 꼽고 있다.

이웃 일본을 보자. 2005년부터 인구 감소가 시작되고, 그보다 먼저 생산가능인구(경제활동 가능 인구 15~64세)는 1990년에 정점을 찍고 젊은 층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부동산도 같은 시기에 폭 떨어졌다. 뒤따르는 세대가 줄어들에 따라 경제 규모도 줄어들어 앞선 세대가 이뤄놓은 성장을 유지할 수 없으니 이를 어쩌랴. 결국 청년층 축소로 ‘인구절벽’의 시대가 도

래하여 생산가능인구가 축소되어 경제는 크게 위축되고 성장 동력을 잃게 되었다. 이런 일본의 현상이 우리는 2018년쯤에 나타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예측된다.

이 글 첫머리는 3포 세대, 5포 세대를 넘어 이제 꿈과 희망까지 포기한 7포 세대 젊은이들의 눈물의 호소이며 SOS 신호이다. 이에 기성세대가 젊은이들의 성장 반침대와 디딤돌이 되어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여 그 눈물 젖은 절구에 희망의 메시지로 응답해야 한다. 고령화 정책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청년을 위한 정책에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특히, 취업이 힘든 광주·전남에서는 ‘우리가 청년을 위해 무엇을 했으며 또 무엇을 해줄 것인가’ 등 현 상황을 되돌아보며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서는 젊은이를 위해 희망을 보여줘야 한다. 지혜와 땀이 더 절실해 필요한 때인 만큼 자치단체장들은 지역민의 총화(總和)를 이뤄가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한 사회가 전국 또는 지역이 되는 것은 구성원이 얼마나 배려·협동하느냐에 달려있다.

은편칼럼은 오피니언 기고 최우수작 수상자의 모임인 ‘은편칼럼’ 회원들의 칼럼을 싣는 코너입니다.

기 고



조 용 진
광주광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

세계 대학생들의 축제인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가 오는 7월3일부터 14일까지 광주에서 개최된다.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는 올림픽에 이어 가장 큰 국제 스포츠 대회로 이번 광주 대회에는 170개국 2만여명의 대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12일간 스포츠를 통한 소통과 교류의 장이 펼쳐진다. 광주에서 치르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국제행사로 전 세계의 눈이 광주로 쏠리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은 물론 광주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민주, 인권, 평화의 도시라는 광주의 상

U대회도 시민정신의 승리로 기록하자

정성은 물론이고 광주의 음식이며 자연, 인심, 도시질서 등을 지구촌 안방까지 알릴 수 있는 기회다. 더불어 지구촌의 안방에는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광주의 세밀한 곳까지 비춰질 수밖에 없다.

광주시민 개개인이 광주의 홍보대사가 되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는 조직위원회나 시민서포터즈, 또는 광주시 공직자 등 관계자들의 행사가 아니라 광주시민의 행사이다.

지구촌 안방에 비추는 것은 단순히 경기장뿐만이 아니다. 행사관계자의 얼굴은 더더욱 아니다. 경기를 진행하고 치르는 근본에 깔리는 광주시민들의 얼굴이 경기를 통해 비춰지게 된다.

모든 나라들이 올림픽이나 월드컵과 같은 국제 행사를 유치하려는 것도 국가나 도시 브랜드를 높이고자하는 데 있다.

이번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통해 우리는 민주, 인권, 평화라는 ‘광주의 가치’를 한층 높일 수 있다.

해외에 나가면 “당신 어디서 왔느냐?”라는 질문에 “한국에서 왔다”고 하면 ‘서

울’이나 ‘올림픽’을 들먹이며 웃어보이곤 했다. 이제는 그들의 입에서 ‘광주’나 ‘유니버시아드’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기회가 광주에 주어졌다.

5·18광주민중화운동이 시민정신의 승리였듯이 오는 7월 광주에서 열리는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역시 광주의 시민정신이 이룬 또 하나의 금자탑으로 기록되기 위해서는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정성스런 발자국이 필요하다. 그 한 발, 한 발의 발자국은 따뜻한 한마디 말, 친절한 몸짓 하나, 작은 헌신과 희생이다. 그런 발자국들이 모여 외국인의 입에서 ‘광주’를 외치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은 새삼 말할 나위가 없다. 나아가 ‘광주’를 외치며 엄지 손가락을 치켜들게 하는 것도 결국은 우리의 몫이다.

그들의 외침에 친절하고 깨끗한 도시, 광주가 묻어나고 광주시민들의 위대함이 드러나 다시 찾고 싶은 도시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광주가 대한민국의 위상을 다시 한 번 세계에 떨 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특히, 유니버시아드대회 참가 선수는 세계 각국의 대학생들로 미래를 이끌어갈 세대이다. 이들에게 광주의 친절하고 따뜻한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은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 할 것이다. 미래광주발전을 위한 우군을 세계 각국에 심어놓는 것과 같다.

광주시는 유니버시아드 대회의 성공개최를 위해 시민홍보·종합지원체계를 가동하면서 웅장한 U-대회 집행위원장은 U-대회를 유치한 박광대 전 광주시장을 시민 서포터즈 추진위원장으로 위촉하고, 시민(대학생) 서포터즈를 모집하는 등 시민참여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서포터즈단은 국가별 환영·환송행사에 참여하고 선수단 응원과 관광·쇼핑 안내 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행사를 돕는다.

위대함은 대단한 그 무엇이 아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참여와 실천이 곧 위대함이다. 광주의 역사적인 행사에 작은 발자국 하나 남겨 위대한 기억으로 남게 하자. 위대한 나를 위해, 광주를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 지구촌의 평화를 위해!

無 等 鼓

현대판 음서제

고려와 조선시대, 공신(功臣)과 5품 이상의 고급관료 자제들은 ‘음서제(蔭敍制)’를 통해 과거를 보지않고도 벼슬길에 오를 수 있었다. 조선 후기에 음서제로 등용된 인물을 기록한 음보(蔭譜)를 보면 모두 1235명이 등장하는데 조상들의 음덕으로 공직에 진출한 사례가 흔했음을 알 수 있다. 신하들의 충성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했다지만 특권층의 권력 세습을 낳아 백성들의 박탈감이 컸다.

시대는 변했지만 현대판 음서제로 불리는 것들이 요즘에도 곳곳에 있다. 청년실업이 유래없이 10%에 육박하지만 대기업들은 우선·특별채용이란 이름으로 고용 세습을 하고 있다. 상시 종업원 300인 이상 대기업 10곳 중 3곳이 단체협약을 통해 직원 가족의 채용특혜를 보장하고 있다.

정년퇴직자의 직계가족에 대한 우선 채용 조항을 둔 곳도 있고, 장기근속 근로자 자녀 중 한 명을 우선채용 대상으로 적시한 곳도 있다.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 개인 질병으로 퇴직한 경우에도 직원 가족을 특별채용하는 조항을 둔 회사도 있다.

시행 7년째로 접어든 로스쿨 제도도 음서제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사법시

험은 돈이 없어도 도전할 수 있고 합격 후에는 성적이 판사·검사·변호사의 길을 결정하지만 로스쿨은 역대 등 록금에다 졸업 후에는 집안의 배경이 취업에 결정적인 작용을 하기 때문이다. 최근 한 언론의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88%가 로스쿨에 집안 배경이 작용한다고 답했고, 70%는 법조인 양성제도도 사법시험을 더 선호했다.

현대판 음서제의 압권은 자치단체의 무기계약직이다. 단체장들이 자신의 선거를 도운 공신이나 친인척, 고위직 자녀 등을 사임없이 슬그머니 2년짜리 기간제 근무자로 채용한 후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되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있다. 본보가 전남지역 22개 시·군을 전수조사 해보니 최근 5년 간 821명이 ‘뒤통’으로 공직에 들어왔고 이중 70%가 지난해 지방선거 전후에 채용됐다.

조선의 명재상 황희도 음서제로 벼슬길을 시작했지만 조시·진사·생원시 등 모든 과거를 다 치르고 후에는 장원 급제까지 했다. 황희 정도의 양심과 노력이라면 특채라도 용서할텐데. 문제는 대다수가 그렇지 않다는데 있다.

/장필수 정치부장 bungy@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申港樂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71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편 집 부 2200-649 정 치 부 2200-642 <대표 FAX 222-4918> 사 회 부 2200-663 <대표 FAX 222-4267>			경 제 부 2200-632 문화생활부 2200-661 여론매체부 2200-696 체 육 부 2200-697 사 진 부 2200-693 조 사 부 2200-571		
			경 영 지 원 국 2200-515 문 화 사 업 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신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디 자 인 팀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프로젝트 팀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